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모 승천 대축일
제3권 38호(다해) 2010-8-15

[묵상]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루가 104년경,
산조반니
푸오르시비타스성당
이탈리아>

지상에서의 힘든 여정을 마치시고
직접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어
당신 아들의 부활에 곧바로 참여하시니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뛸니다.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
남들 위에 군림하고자하는 통치자,
스스로 부유해서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
주님의 눈 밖에 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비천함은
순명하는 겸손한 삶,
주님을 향한 굶주린 삶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비천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기뻐 뛰어놀
제 영혼과 마음도
행복한 비천함에 머물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시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교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례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50

토 요 특전미사	(연)서인수 요셉
	(생)케네스 안드레아 해밀튼, 김영석 마테오, 김영민 스테파노
주 일 낮 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이금순 마리아, 조지 가보라, 이현호 요한, 박문영 안젤라,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장현숙 발바라, 이민영, 엄은섭 도로테오, 홍관 요셉
	(생)오명섭 미카엘 & 오창애 안나 가정,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 마리아 가정,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김문수 미카엘 & 용희 가정, 임진희 한나, 이경수 헤레나, 김정애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노영자 마리아, 황마리 마리아, 박종옥 제임스, 반영선 도미니카, 윤인아 크리스티나와 본당의 모든 대학신입생들, 문 밍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11,19ㄱ;12,1-6ㄱ.10ㄱ-11

화답송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오퍼르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듣거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이라.
네 겨레와 아버 집을 잊어버려라.㉢
○이에 임금이 네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그는 네 임자이시니.㉣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어
임금님 대궐로 들어가나이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5,20-27ㄱ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복음 루카(Luke) 1,39-56

영성체송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주 예수 어머니	109
봉헌	364	325
성체	382	282
파견	326	334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시나이 산의 율법에서 성령의 선물까지

이러한 시각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유혹에 대한 응답으로 인용하신 신명기의 대목이 지닌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신명 8,3; 마태 4,4 참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품위 있고 정의롭게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지혜를 버리는 자는 죽을 것이다."(바룩 4,1)

49). 이스라엘의 역사는 생명의 법에 충실하고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 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이며, 계약의 백성에게 시나이 산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 백성이 하느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주님만이 홀로 생명의 참된 원천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히 환기시켜 주는 것은 특히 예언자들이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뚫다." 예언자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고발한다. "너희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긴다."(아모 2,7) "그들은 이곳에서 죄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예레 19,4) 예언자들 중에서 예제키엘 예언자는 자주 예루살렘을 "피의 도성", "피를 흘려 망할 날을 재촉하는 성읍"이라고 단죄한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단죄하면서 한편으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의 새로운 원칙에 대한 희망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 새로운 원칙은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요구들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새롭고 특별한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는 원칙이다. 이것은 오직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지는 하느님의 선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에제 36,25-26; 예레 31,34 참조)

이 "새 마음"은 생명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참된 의미, 말하자면 생명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온전히 실현되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빛나는 메시지는 주님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이사 53,10.11) (◆계속)

희망 주신 분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며 ‘희망’을 생각한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로 올림(구원)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 희망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나도 사명 받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성모님처럼 살아야 함이 전제된다. 그런데 막상 성모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나 같은 사람을 성모님과 감히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성모님의 삶을 다시금 헤아려 보니,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닌 ‘멀리 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운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희망을 나의 희망 되게 해주시며, 나의 희망이 실현 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도 나처럼 부족함을 지닌 인간이었으나, 그분의 삶은 여러 어려움(마태 2, 13; 루카 2, 7. 35. 48; 요한 19, 25 참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주님을 향해 거듭 나아갔다. 그분의 신앙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갖가지 장애와 혼란을 극복하고 완성(승천)으로 향하였다.

두 가지 주제, 즉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루카 1, 39~45. 56)과 ‘마리아의 노래’(루카 1, 46~55)로 꾸며진 오늘의 복음은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목적은 엘리사벳의 출산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루카 1, 56 참조) 아이를 못 낳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의 잉태(루카 1, 7. 24)가 지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다.

마리아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루카 1, 36)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며 엘리사벳을 만나러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녀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 38)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처녀로서 혼란스런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



〈그림 : 하삼두 스테파노〉

었을 것이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써 정리된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잉태가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주님 친히 이 일을 해주신 것임(루카 1, 25)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벳의 찬미(루카 1, 42~45)를 들으며 자신의 잉태 또한 ‘주님의 일’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찬송으로 가득한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가 자연스레 그녀의 마음으로 부터 흘러나왔던 것이다.

오늘 대축일은 우리를 기쁘게 해 준다. 우리도 언젠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우리 희망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마리아’로 살아야 할 것이다.

◆ 윤용선 바오로 신부 / 부산교구 수영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모 승천
대축일**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교우 여러분. 성모승천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낮미사 후 점심식사에 전교우를 초대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소공동체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요셉회 천교잔치에 초대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5일) 낮미사 후 강당
- 식사 : 여름 보양식 삼계탕 ●대상 : 65세 이상 누구나 환영
- 문의 : 요셉회장 권태만 실베스텔 ☎(310)989-9077
총무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 본당 신부님 북미주 부산교구 사제단 회의 참석

- 일정 : 8월16일~20일
- 장소 : 파나마
- 평일미사는 손님신부님께서 집전해주십니다.

◆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 불우이웃돕기 김치판매를 앞두고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수거합니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빈첸시오회장 ☎(310)283-5879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8월21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알론드라 팍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991-6966

◆ 2010년 제23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주제 :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사도 2,18)
- 일시 : 8월21(토) 오전 8시~오후 10시
22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Marsee 오디터리엄
(16007 크렌셔 불리바드, 토런스)

- 강사 :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회장), 허윤석 세례자 요한 신부(한국 가톨릭 전례학회 사무처장),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LA 성삼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25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본당 올뜨레아 8월 정기 모임

- 일시 : 8월22일(주일) 낮미사 후 회의실, 점심제공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연락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남가주 제32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 백삼위 본당에서 남가주 제32차 남성 꾸르실료에 3명의 수강자와 2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 드립니다.
- 일정 : 8월26일(목)~29일(주일)
- 수강자 : 이철우 야고보, 김성현 유스티노, 김용상 패트릭
- 봉사자 : 황철수 베드로, 천광락 야고보

◆ 본당 신부님배 축구대회 및 족구대회 개최

- 일시 : 8월29일(주일) 오후 1시
- 축구대회 : 양업회, 대건회, 원서회, 청년회
- 족구대회 : 성모회, 자모회, 원서회자매, 청년자매
- 선수구성 : 축구 각 7명, 족구 각 6명
- 상품 : 1등 트로피 및 부상 증정
- 연락처 : 박상진 바오로 ☎(213)819-4242, 김철민 요한 ☎(310)740-1502,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 전례 협조자 모집

- 대상 : 1. 독서자-미사 중 독서를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2. 해설자-미사 해설을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3. 성인 복사단-미사 때 복사를 설 수 있는 남성교우
- 연락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차장 김성현 유스티노 ☎(310)347-1665, 본당 수녀님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15일(주일) : 하버/카슨 2반(수제비 무료)
- 8월22일(주일) : 토런스 동 2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권태만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양금	김영경	김옥찬	김 욱	김원모
	김원호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종문	김주량
	김철민	김호순	노혜숙	민소애	박상준	박음전
	배기엽	신대철	안민수	엄세중	엄혜은	이경태
	이귀란	이상식	이일길	장영진	장정진	정규숙
	정동호	정상봉	정열모	채양석	최재은	최태훈
	한창주	한길선례				합계 : \$5,100
미사헌금 : \$2,697						
성전헌금	강인모	권오상	권태만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양금	김 욱	김원모	김원호
	김정희	김종문	김주량	김철민	김호순	노혜숙
	민소애	배기엽	신대철	안민수	엄세중	엄혜은
	이경태	이귀란	이상식	장정진	정규숙	정동호
	정상봉	정열모	채양석	최재은	최태훈	한창주
	한길선례					합계 : \$3,820
감사헌금 : 정열모						
						한남체인 기부금 : \$320

공지사항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 본당 M.E. 8월 세어링

- 일시 : 8월22(주일) 오후 5시30분, 강당
- 남가주 M.E. 제66차 첫주말에 본당에서 부부 3쌍 참가
배진영 프란치스코 & 유순정 클라라,
장수창 요한 & 장주란 마리아, 이현창 야고보 & 강은진 켈마
- 연락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 주일 학생미사 전례봉사자 연수

- 일시 : 8월28일(토) 낮 12시~오후 3시 강당, 점심 제공
- 대상 : 현재 봉사중인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앞으로 전례봉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 연락 : 김정심 크리스티나 ☎(310)490-9662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학기시작 : 9월12일(주일)
- 수업시간 : 주일아침 9시30분 학생미사후~오전 11시45분
- 대상 : 유치부(9월기준 4살반 이상)~12학년
- 등록기간 : 9월12일(주일, 이후 \$10 추가)
- 등록비(1년) :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 \$40 (가정당)
- 접수 : 미사후 현관 접수처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속히 마치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해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첫영성체/신영성체/견진성사/초상화(영정)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5월 견진성사, 6월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영정사진 : 사진을 찍었는데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진행 힐라리오 홍보부장에게 문의하세요.
☎(714)290-4807

남가주 소식

◆ 제 1회 남가주 가톨릭 한인 청년연합 찬미의 밤

- 일시 : 8월 28일(토) 오후 7시~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 천주교회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412 North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문의 : 백삼위 배론 청년회 밴드부장 김기석 바오로
☎(323)206-2657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반찬사모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8월사목상임위 휴회	(서면으로 회의자료 제출)
------------	----------------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8/6(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530-7702 8/14(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8/19(목)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해원 아네스 780-0369 8/13(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 엘리사벳 543-4953 8/7(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정현 베네딕다 720-2876 8/14(토)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오명섭 미카엘 326-1519 8/20(금)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972-9193 8/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상철 크리스토퍼 750-4051 8/14(금) 오후 5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스텔라 213-272-8393 8/6(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오명섭 스테파노 891-3688 8/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087 8/14(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60-6615 8/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광복 6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루빨리 남북이 화해하고 용서하며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와 하느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구원사업의 완벽한 협조자가 되셨던 성모님의 승천을 기뻐하며 무한한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하늘에 올림을 받아 하느님 영광 안에 드셨듯이 우리도 장차 하늘에 올라 하느님 영광 안에 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해왔습니다.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님은 1838년 12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한국교회의 주보성인으로 정해 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하였고 184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승인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성모신심은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또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조국이 광복되는 기쁨을 맞으면서 한국교회의 수호성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만큼 소중한 절실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대립과 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부자와 빈자, 세대와 지역 사이에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마찰의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중 몇몇 사안들은 지금도 찬성과 반대의 극단으로 나뉘어 갈등과 분열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가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그 해결점이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어렵습니까?

사회 공동체의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과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

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는 요원한 것이 됩니다. 결국 참 평화를 만드는 것은 사랑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움과 갈등과 질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희망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이룸으로써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마태 5,9).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가정과 사회에 평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점점 더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다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아 온 겨레에 평화의 인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